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1월 19일 주일 설교입니다.

< 선한 양심을 가지라 >

베드로전서 3:16,17 / 새찬송가 31 (통일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 새해에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여쭙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아뢰는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전환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도움도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을만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싸우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2. 새해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봅시다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벧전3:21).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선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창1:26). 하나님의 형상이 고귀한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딤후1:19).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파선합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과 다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선한 행동’을 하기 원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탄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입니다(롬7:18,19)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 강도는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었기에 스스로 악하다고 판단하여 회개하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믿음과 선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받는 것입니다(눅23:41-43). 다윗도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으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질책했을 때 즉시 회개했던 것입니다.

3. 믿음과 선한 양심의 조합이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고백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막9:23). 그러므로 믿음이 주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빌4:13).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외에 또 다른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양심에 의한 담대한 고백입니다(요일3:21). 이는 내 안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책망 받은 즉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히4:16).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벧전3:16,17).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고 담대함을 줍니다. 이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과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즉 ‘믿음의 담대함’도 있어야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나는 할 수 있다’는 ‘선한 양심의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적용&실천>

나는 내 스스로를 선한 양심에 비추어 보며 살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의 미세한 음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